

## 서울소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실태와 교육대학원생의 인식

이선정\* · 신혜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

## The Oper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the Graduate Students' Perception

Lee, Seon-Jung\* · Shin, Hye W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s in the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and to find out how graduate students perceive them.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use of handbooks issued by 11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located in Seoul, and through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the administrative staff. To determine how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Home Economics perceive their Home Economics course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graduate students in 10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and a total of 131 accomplish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11 graduate schools aimed to retrain their teachers,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 and produce home economics education experts.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s come in two strands: a teacher's course and a major course. Most of the schools require a total of 30 credits. All Schools lack professors. Only 3 graduate schools have a home Economics Department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ll graduate schools are offering a teacher's course based on a teacher's certification system. In a major course, Home Economics education has the largest number of subjects, with Clothing and Textiles and Food and Nutrition being given greater emphasis, and Consumer Economics, Home Economics Management, Child Care, and Family and Housing Studies being given less emphasis.

---

1) 교신저자: Shin, Hye Won, 26-3 Pil-dong, Jung-gu,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Tel: 02-2260-3415 Fax: 02-2260-1170 E-mail: hws@dongguk.edu

Second, they mostly regar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 producer of experts, followed by producers of teachers and teacher re-trainers. Those who were major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in college, and the teachers, are more interested in teacher re-training, while the non-teachers and those who were not major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re more interested in producing teachers. They are less satisfied with the oper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t they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Graduate students registered the lowest satisfaction with a major course, especially experimental subjects. For a teacher's course, the graduate students who are not teachers exhibited higher satisfaction, whereas the teachers showed lower satisfaction. But teachers registered more satisfaction with the practical use of major subjects in the educational field, thinking that their major was a big help in their work at a school. As for what has to be improved with regard to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many cited the necessity of securing a good faculty and expanding the major subjects.

Key Words: 교육대학원(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운영(Operation), 인식(Percep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대학원은 우리나라에 서구식 대학원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1963년 서울대학교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교육대학원의 교육 목적은 중·고등학교의 증건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양성, 교과교육 전문가의 양성, 교과교육학의 전문학자 양성으로 교육대학원은 교원의 자질향상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 교육현장 개선 등에 크게 공헌했다(김성길, 2001). 교원인사에서 학위취득자를 우대함으로써 현직 교원들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교육대학원 졸업자들의 연구직과 교수직 등 전문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들의 석사학위논문과 계속교육의 경험은 학교현장의 연구풍토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이종성, 1995). 그러나 교육대학원은 이러한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임교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현장교사를 위한 재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영적 측면에서는 야간제와 계절제 수업의 특성상 형식적인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기 쉽다(김성길, 2001).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교원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매우 부실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다(이종성, 1995). 이처럼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수 부족, 교육과정과 교육실습의 부실한 편성과 운영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교육대학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김정미, 1995; 백인순, 2000; 심귀섭, 1993)이 있었고, 미술, 중국어, 사회 등 특정교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가정교육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김미경(1997)의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정교육전공자의 인식조사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위 연구는 단순히 인식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제시한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약 10년이 지난 지금 가정교과 교육의 상황이 많이 변화한 상태에서 현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전반과 이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살펴보고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운영실태와 교육대학원생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이 처한 교육여건을 돌아보고 개선방법을 찾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내용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 1-1. 학교별 교육목표를 비교한다.
  - 1-2. 학교별 졸업 이수학점을 비교한다.
  - 1-3. 학교별 전임교수, 사범대와 가정교육과 개설 현황을 비교한다.
  - 1-4. 학교별 교직과목 교과과정을 비교한다.
  - 1-5. 학교별 전공과목 교과과정을 비교한다.
2.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살펴본다.
  - 2-1. 교육대학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2. 교육대학원의 운영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2-3.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선정한 것은 약 10년 전의 선행연구(김미경, 1997)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선행연구에는 가정교육전공의 교육목표와 전공 전임교수 현황, 교육대학원과 연계성이 있는 사범대와 가정교육과의 개설현황에 관한 결과가 없으므로 가정교과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으로 추가 설정하였다.

또한 교육대학원생들의 인식을 출신학부와 직업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는데 이는 교육대학원생들의 학부전공이 다양하고 직업도 교사와 학생이 섞여있음으로써 교과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관련문헌고찰

### 1. 교육대학원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교육대학원은 대학정비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정비절차에 의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대폭 축소·조정되면서 1963년 4월에 서울대학교에 창설되었다(교육개혁심의회, 1987). 그 후 이화여대가 67년, 고려대와 경북대가 68년에 교과교육과 교육학을 중심으로 교육대학원이 설립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교육대학원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1970년대 말부터 전문대학원을 대량 신설인가 해 줌으로써 교육대학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학원수와 대학원생수가 학부의 팽창속도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관련된다(교육개혁심의회, 1987). 그 이후에도 교육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교육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이 국·공립대학교에 24개, 사립대학교에 99개가 설치되어 있어 123개교에 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이를 통해 볼 때 교육대학원이 교원에 대한 계속교육과 교원양성 등 우리나라의 사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 가정교육전공은 1969년 경북대에 처음 개설되었고, 그 후 이화여대에 개설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공립에 17개, 사립에 25개가 설치되어 총 42개교로 <표 1>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8년 현재 서울에 개설된 가정교육전공은 사립대학 11개교이다. 이는 1995년 자료로 연구한 김미경(1997)의 결과와 비교하면 그 당시 서울에 13개교에서 가정교육전공이 개설되었던 것이 국민대, 단국대, 연세대에서 없어지고 경희대에서 신설되어 2008년 현재 11개교로 줄어든 것이다.

교육대학원은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교육대학원의 설치에 일반대학원의 설치근거에 준하여 교육법 제 109조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와 교육법 시행령 제 118조 “대학원에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둔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

<표 1> 가정교육전공이 개설된 교육대학원

설립별	학교명	설립년도	수업형태	위치
국립	경북대	1969	야간	대구
	부산대	1975	야간	부산
	전남대	1975	계절	광주
	충북대	1975	야간, 계절	충북
	전북대	1976	야간	전북
	강원대	1979	야간	강원
	충남대	1979	계절	대전
	경상대	1980	야간	경남
	공주대	1981	계절	충남
	순천대	1994	계절	전남
	제주대	1994	야간	제주
	목포대	1995	계절	전남
	안동대	1995	야간	경북
	창원대	1997	야간	경남
한국교원대	1997	계절	충북	
군산대	1998	야간	전북	
공립	인천대	1982	야간	인천
사립	이화여대	1970	야간	서울
	계명대	1973	야간	대구
	동아대	1973	야간	부산
	인하대	1978	야간	인천
	건국대	1980	야간	서울
	동국대	1980	야간	서울
	원광대	1981	야간	전북
	경남대	1982	야간	경남
	한양대	1982	야간	서울
	영남대	1983	계절	경북
	성신여대	1984	야간	서울
	숙명여대	1984	야간	서울
	대구대	1985	계절	경북
	고려대	1988	야간, 계절	서울
	관동대	1988	야간	강릉
	중앙대	1988	야간	서울
	상명대	1990	야간	서울
	명지대	1993	야간	서울
	수원대	1993	야간	경기
	대구가톨릭대	1994	계절	경북
울산대	1994	야간	울산	
경희대	1996	야간	서울	
고신대	2000	야간	부산	
서원대	2000	야간	충북	
전주대	2006	야간	전북	

이 교원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근거는 학부과정에 적용되는 교육법 제 79조에 근거하고 있다(박덕규 외, 1993). 이와 같이 교육대학원은 스스로의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없기 때문에 일반대학원과 학부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이중으로 규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대학원의 설치목적이나 교육목표 그리고 대학원의 성격이 일반대학원과 다르므로 교육대학원의 성격 및 체제 재정립을 위해서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김정미, 1995).

교육대학원은 1963년 서울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 및 교육행정가의 양성을 목표로 최초로 설립되었다. 즉, 교육대학원은 설립 당시부터 중·고등학교의 중견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양성, 교과교육 전문가의 양성, 전문학자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 왔다(서울대학교, 1975).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설립 이후 교육대학원은 학위취득자에 대한 교원인사 우대정책에 따라 현직 교사와 교육전문직 종사자들의 계속교육에 공헌했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장학직이나 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종사자를 배출했으며,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공헌했고, 신규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교육대학원 졸업자들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부족현상을 해소했고, 학위과정 이수자들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교사의 자질을 대학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으며, 교사연수와 연구학점제 실시에 따라 현직교사의 자율연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수기반구축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였다(김성길,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대학원의 기능은 계속교육 기능, 고급 전문 인력 양성 기능, 상위자격부여 기능, 교사양성 기능으로 볼 수 있다.

## 2. 선행연구

교육대학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교육과정 운영실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미술, 중국어, 영어, 사회, 가정 등 특정교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가정교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미경(1997)의 연구만 있었는데 이는 전국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가정교육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육대학원의 기능, 교육대학원과 가정교육프로그램 운영전반에 관한 만족도, 교과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과교육이 학생지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지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교직경험년수, 수강학기, 학부전공에 따라 살펴보았다. 다음에 본 연구내

용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

### 1)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교과과정의 편제와 졸업이수학점, 특정교과에 대한 교직과 전공과목 개설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과과정의 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법에 나타난 대학원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각 교육대학원의 학칙을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고,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이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심귀섭, 1993).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연구한 김미경(1997)은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 편성이 교직과목 6학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일반대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졸업 총 이수학점 범위는 각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24~30학점의 범위에 있다고 하였다. 교직과목은 크게 교직필수, 교직선택, 교육실습으로 나뉘며, 모든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주로 교사자격 검정령에 의한 교직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었는데 교직과목은 4학점에서 12학점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많은 학교에서 6학점으로 편성되었다. 전공과목은 주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나누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공이수학점을 규정한 학교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교육대학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가정교육전공의 교육목표와 전임교수 현황, 사범대학과 사범대 가정교육과 개설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2)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대학원의 기능,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과교육이 교사활동에서 학생지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교육대학원의 기능에 대해 김정미(1995)는 교육대학원생

들은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차별성 유지와 교육대학원을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특성화해야 한다는 데에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가정교육 전공의 교육대학원생은 교직경험과 수강학기가 많을수록 교육대학원의 기능은 교사재교육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학부 출신학과별로 보면 가정교육 전공자가 다른 전공자에 비해 교과교육과 교사재교육의 기능을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김미경, 1997).

교육대학원 운영전반에 관해 학생들은 교육대학원 도서관에 전공분야에 관련한 서적 확보와 전용연구공간의 확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편의시설의 확보도 부족하여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만족하지 않으며 특히 장학금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인순, 2000; 김미경, 1997).

교육과정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로 백인순(2000)은 교육대학원생들 대부분이 교육과정의 수준을 학부보다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과과정 그 운영 자체는 만족스러우나 개설과목의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의나 수업에 대해서는 교수의 성의 있는 준비와 수업태세, 학생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 한 강좌 당 학생수의 제한, 수업방법 자체의 개선, 학생 평가방법의 개선 순으로 의견을 나타냈으며, 현재의 강의나 수업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미(1995)는 교과교육 수업에서 실험·실습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가정교육 전공자들은 가정교육전공 운영전반에 대해 교직경험이 많을수록 교육과정 수준에 만족하며, 전공과목이 현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나 교과교육 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하로 나타났다(김미경, 1997).

교과교육이 교사활동에서 학생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백인순(2000)은 교과내용이 주로 이론적이지만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김정미(1995)는 교과교육이 교재연구, 교수방법, 교과목표, 교과내용 선정 및 조직, 교과평가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미경(1997)은 가정교육 전공자중 교직경험이 많을수록 학생지도 중 교과목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선과제에 대해 교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전공교수 확보와 교과목 개설 확대를 우선적으로 들었고,

그 밖에 교과교육학의 필수 이수학점 확대와 교과교육 전공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김미경, 1997; 김정미, 199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에 대해 다방면으로 선행연구가 있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자료조사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정교육전공이 개설된 서울소재의 11개 교육대학원(<표 1>참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행정실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교육목표, 졸업이수학점,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수, 사범대, 가정교육과 개설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학교별로 분석하였다.

#### 2. 설문조사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3월 19일에서 3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현재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에 재학생이 없는 E대를 제외한 서울소재 10개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직접방문과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35부를 회수하여 131부가 사용되었다. 설문지 구성과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표 2>와 같다. 설문지는 선행연구(김정미, 1995; 김미경, 1997; 백인순, 2000)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설문지 구성

영역	설문내용	문항수	문항형태	Cronbach's Alpha	
인구통계학적 특성	· 학기, 학부 출신학과, 성별, 연령, 직업, 교직경험 년수, 진학동기	7	선택형, 기입형	-	
교육대학원의 기능	·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교원양성 기관, 교사재교육,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4	리커트식	0.715	
교육대학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	· 학사운영, 전임교수 확보, 도서관 이용, 대학원 시설 및 설비, 장학금 제도	5	리커트식	0.705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전반	· 교육과정 전반	1	리커트식	0.815
	수준	· 교육과정 수준	1	리커트식	
	교직과목	· 교직과목 이수강좌 수, 이수학점, 학교현장의 활용도, 운영실태	4	리커트식	
	전공과목	· 전공과목의 이수강좌 수, 이수학점, 학교현장의 활용도, 학부수준과 비교, 실험·실습적 측면, 운영실태	6	리커트식	
	개선	· 개선과제	1	선택형	
가정교과 교육이 교사활동에서 학생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현직교사 유무, 교과목표, 내용선정 및 조직, 교재연구, 평가 면,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방법	7	리커트식	0.822	

통계처리는 SPSS 14.0 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명(%)	
학기	1학기	31(23.7)
	2학기	24(18.3)
	3학기	32(24.4)
	4학기	17(13.0)
	5학기	27(20.6)
학부 출신학과	가정교육과	20(15.3)
	기타학과	111(84.7)
성별	여	130(99.2)
	남	1( 0.8)
연령	20대	93(71.0)
	30대 이상	38(29.0)
직업	교사	19(14.5)
	학생	76(58.0)
	기타	36(27.5)
교직경험	있음	19(14.5)
	없음	112(85.5)
교육대학원 진학동기	교사자격증 취득	92(70.2)
	석사학위 취득	18(13.7)
	전문성 함양	15(11.5)
	자기개발	6( 4.6)

는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교육대학원생의 직업은 학생이 58%로 가장 많았고, 교사가 14.5%로 나타났다. 진학 동기를 살펴보면 교사자격증 취득이 70.2%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취득 13.7%, 전문성 함양 11.5%, 자기개발 4.6%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교사인 학생이 과반수를 넘었던 김미경(1997)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과거에는 주로 현직교사가 재교육을 받고자 했지만 현재는 예비교사의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IV. 결과 및 고찰

##### 1. 가정교육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 1) 학교별 교육목표

11개 교육대학원에서 공통으로 가정과 교사의 재교육,

전문성 향상과 유능한 가정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학교별 특징을 보면 A대, D대, J대는 가정과 교사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신규교사를 양성하는 것 또한 교육목표로 하였다. 특히 D대는 가정과 교육전문가와 가정과 교원, 가정과 예비교원 별로 교육목표를 세분화하여 명시했다. A대는 가정학의 다양한 학습내용을 전달, 가정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의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보매체 및 계계를 활용하는 능력을 증진, 함양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E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2) 학교별 졸업이수학점, 전임교수, 사범대 및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직 및 전공과목 개설 현황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이원적 구조를 이루었고, 학점배당은 대부분 2학점 단위로 편제하고 있으나, F대는 2~3학점, I대는 3학점 단위로 편제하고 있었다. 학교별 총 졸업이수학점은 F대 24학점, J대 28학점을 제외하곤 대부분 30학점이었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F대가 15학점인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6~8학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F대가 9학점인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16~21학점이었다. 논문 학점은 대부분 3~6학점이었고, F대와 J대는 학점 없이 논문의

<표 4> 학교별 졸업이수학점, 전임교수, 사범대, 가정교육과, 전공과목 개설 현황

학교	A	B	C	D	E	F	G	H	I	J	K	
졸업이수학점	교직과목	6	8	6	8	8	15	8	8	8	8	
	전공과목 (필수/선택)	18	16	20	16	16	9	16	16	6 /15	16	16
	기타과목	.	0(P/F)	.	2	.	.	.	.	.	4	0(P/F)
	수료학점	24	24	26	26	24	24	24	24	27	28	24
	논문학점	6	6	4	4	6	0(P/F)	6	6	3	0(P/F)	6
	계	30	30	30	30	30	24	30	30	30	28	30
영역별 전임교수현황	가정교과교육	.	.	(1)	.	.	.	.	.	.	.	
	의류학	.	3	1	1	.	2	.	.	1	1	1
	식품영양학	.	4	1	1	6	.	.	.	.	2	1
	소비자·가정 관리학	4	.	(1)	1	.	4	1	.	2	.	.
	아동·가족학	.	3	2	1	4	1	.	2	2	1	.
	주거학	.	3	.	.	.	.	.	.	.	.	1
	계	4	13	5	4	10	7	1	2	5	4	3
사범대, 가정교육과 개설현황	사범대	o	x	o	o	x	o	o	x	o	o	o
	사범대 가정교육과	x	x	o	o	x	x	x	x	x	o	x
전공과목 개설현황	가정교과교육	3	4	4	4	2	10	2	3	9	5	7
	의류학	7	6	4	2	6	2	6	5	5	3	6
	식품영양학	1	5	5	2	4	2	6	5	5	3	6
	소비자·가정 관리학	5	2	3	3	2	2	2	5	1	1	2
	아동·가족학	1	2	3	2	2	2	3	2	2	2	2
	주거학	5	1	1	2	1	2	1	1	1	1	2
	기타	0	1	2	0	0	5	0	3	0	1	4
	계	21	20	22	15	17	25	20	24	23	16	29

P/S: Pass/Fail

(1): 한 교수가 2영역의 전공을 맡고 있음.



통과여부만 보았다. 기타과목으로 B대는 영어특강, K대는 공통영어 과목을 Pass/Fail로 이수하고, D대는 공통과목을 2학점, J대는 공통필수 과목으로 전공 심화연구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별 가정교육전공 전임교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교과교육 영역 전임교수가 있는 학교는 C대가 유일하나 이도 소비자·가정 관리학 영역과 전임을 겸하고 있었다. 주거학 영역 전임교수가 있는 학교는 B대와 K대뿐 이었다. 반면 A대와 G대는 소비자·가정 관리학 영역만, H대는 아동·가족학 영역만 전임교수만 있었다. 전체적으로 의류학, 식품영양학, 소비자·가정 관리학, 아동·가족학 영역은 비교적 전임교수가 확보되었으나 가정교과교육과 주거학의 전임교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교과교육 영역은 가정 과목을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가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되는 과목이므로 전임교수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범대와 사범대 가정교육과 개설 현황을 보면 A대, E대, G대는 사범대가 없었고, 사범대에 가정교육과가 개설된 학교는 C대, D대, J대 세 학교로 다수의 교육대학원이 사범대에 개설되지 않은 가정교육과를 교육대학원에만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의 연계성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 교육대학원의 전문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교직과목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교직과목의 분류 명칭이 다양하지만 11개 교육대학원 모두 교사자격 검정령에 의한 교직과목인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과 ‘교육실습’이 공통으로 개설되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B대는 기본교육학 과목 외에 미래지향적 교사 양성과목과 현실적용적 과목이라는 교직과목이 개설되었고, D대는 신규교사 양성을 위

한 교직일반과정과 현직교사 재교육을 위한 교육심화과정으로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별 전공과목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K대가 29과목으로 가장 많은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수강선택의 폭이 넓었고, D, J, E대는 15, 16, 17과목이 개설되어 수강선택의 폭이 좁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교과교육, 의류학, 식품영양학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은 각각 평균 4.8(22.6%), 4.7(22.2%), 4.0(18.9%)과목으로 비중이 높았고, 소비자·가정 관리학, 아동·가족학, 주거학 영역에는 각각 2.5, 2.1, 1.6 과목이 개설되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와 같이 영역별로 교과목이 고르게 개설되지 않아 가정학의 영역별 내용을 균형있게 학습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 2.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

### 1) 교육대학원 기능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교원 양성기관, 교사 재교육 순으로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원 양성기관으로써의 기능이 교사의 재교육 기능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대학원생의 대부분이 현직 교사보다는 학생이기 때문이며, 또한 교육대학원 진학동기가 교사자격증 취득이므로 교원 양성기관으로써의 교육대학원 기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1) 학부출신학과에 따른 교육대학원 기능에 대한 인식 비교

교육대학원이 교원 양성기관의 기능을 갖는 것에 대해

<표 5> 교육대학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

교육대학원의 기능	평균(표준편차)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4.01(.818)
교원 양성기관	3.71(.949)
교사 재교육	3.48(.880)

<표 6> 학부 출신학과에 따른 교육대학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 비교

평균(표준편차)

문항		가정교육과 N=20	기타학과 N=111	t값
교육 대학원의 기능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4.15( .745)	3.98(.831)	.845
	교원 양성기관	3.25(1.070)	3.79(.906)	-2.398*
	교사 재교육	4.00( .725)	3.39(.876)	2.949**
	계	3.80( .410)	3.72(.553)	.610

\*p<.05, \*\*p<.01

학부 출신학과가 기타학과인 학생(3.79)이 가정교육과 출신인 학생(3.25)보다 높게 인식하였고, 교사 재교육에 대해서는 가정교육과 출신(4.15)이 기타학과 학생(3.39)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가정교육과 출신 학생이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교원 양성기관보다는 교사 재교육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났다. 그중에서 도서관 이용(3.56)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학사운영(2.99), 대학원 시설 및 설비(2.98), 전임교수 확보(2.74), 장학금 제도(2.0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임교수 확보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앞의 운영실태 조사에서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의 영역별 전임교수의 확보가 부족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2) 직업에 따른 교육대학원 기능에 대한 인식 비교

직업에 따른 교육대학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교사가 학생보다 교사 재교육에서 높게,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이미 교사인 학생은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교사 재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3)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3.02)는 보통으로 나타났다며 세부적으로 교육과정 전반(3.08), 교직과목(3.10), 교육과정 수준(3.03), 전공과목(2.95)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교직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이수강좌 수(3.11), 이수학점(3.20), 전반적 운영 실태(3.10), 학교현장 활용도(3.01)에서 보통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2.95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전공과목의 실험·실습적 측면(2.56)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2) 교육대학원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2.86)는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

<표 7> 직업에 따른 교육대학원의 기능에 대한 인식 비교

평균(표준편차)

문항		교사 N=19	학생 N=76	기타 N=36	F값
교육 대학원의 기능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4.16( .834)	4.01(.825)	3.92(.806)	.541
	교원 양성기관	3.05(1.224)	3.82(.795)	3.83(.971)	5.728**
		B	A	A	
	교사 재교육	4.11( .994)	3.49(.757)	3.14(.899)	8.349***
A		B	B		
계		3.77( .567)	3.77(.500)	3.63(.584)	.928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1, \*\*p<.001

<표 8> 교육대학원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육대학원의 운영	평균(표준편차)
도서관 이용	3.56(.824)
학사운영	2.99(.728)
대학원시설 및 설비	2.98(.894)
전임교수 확보	2.74(.933)
장학금 제도	2.03(.868)
계	2.86(.531)

다. 이는 가정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실험·실습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실험·실습 측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1) 직업에 따른 만족도 비교

직업에 따른 교육대학원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교직과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 이수강좌 수, 이수학점, 학교현장 활용도에 관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과 기타직업인 학생은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교사는 만족도가 2.68로 교직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는 이미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이수했고,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이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직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에 따른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중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에서 같은 문항인 학교현장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교직과목의 학교현장 활용도(2.63)는 다른

<표 9>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문항		계 N=131	교사 N=19	학생 N=76	기타 N=36	F값
교육과정 전반		3.12(.633)	2.95(.524)	3.21(.618)	3.03(.696)	1.892
교육과정 수준		3.03(.744)	2.95(.524)	3.03(.800)	3.08(.732)	.208
교직과목	이수강좌 수	3.11(.767)	2.63(.684)	3.28(.685)	3.00(.862)	6.330**
			3.20(.738)	A	A	
	이수학점	3.20(.738)	2.68(.582)	3.30(.731)	3.25(.732)	5.863**
			3.10(.753)	A	A	
	학교현장 활용도	3.01(.837)	2.63(.831)	3.14(.919)	2.92(.554)	3.262*
			B	A	AB	
운영실태	3.10(.753)	2.79(.535)	3.13(.772)	3.19(.786)	1.996	
계	3.10(.575)	2.68(.440)	3.21(.591)	3.09(.508)	7.062**	
B	A	A				
전공과목	이수강좌 수	3.02(.855)	3.05(.705)	3.07(.806)	2.92(1.025)	.382
	이수학점	3.14(.742)	3.16(.602)	3.18(.706)	3.03(.878)	.548
	학교현장 활용도	3.11(.847)	3.32(.820)	3.11(.946)	3.03(.609)	.727
	학부수준과 비교	2.93(.834)	2.74(.733)	2.97(.864)	2.94(.826)	.616
	실험·실습	2.56(.870)	2.26(.872)	2.62(.864)	2.58(.874)	1.296
	운영실태	2.92(.795)	2.74(.733)	3.00(.833)	2.83(.737)	1.104
	계	2.95(.567)	2.88(.515)	2.99(.564)	2.89(.606)	.560
계	3.02(.452)	2.82(.376)	3.09(.448)	2.98(.474)	2.794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표 10> 가정교과 교육이 현직교사의 교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대학원의 가정교과 교육이 현직교사의 교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평균(표준편차)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증가	3.47(.513)
교재연구에 도움	3.32(.671)
교수방법 면에 영향	3.32(.820)
교과목표면에 영향	3.21(.787)
평가면에 도움	3.16(.688)
내용선정 및 조직에 도움	3.11(.737)
계	3.26(.516)

학생에 비해 낮았지만 전공과목의 학교현장 활용도(3.32)는 높은 편으로 현직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전공과목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직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교과 교육이 현직 교사의 교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가 <표 10>과 같다. 교육대학원의 가정교과 교육이 현직교사의 교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3.26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증가(3.47), 교재연구에 도움, 교수방법 면에 영향(3.32), 교과목표면에 영향(3.21), 평가 면에 도움(3.16), 내용선정 및 조직에 도움(3.11)으로 모든 문항에서 보통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가정교과 교육과정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은 전임교수의 확보(36.3%)>전공과목 개설확대(30.4%)>교육실습체계의 개선 (14.1%)>박사학위과정 개설(7.4%)>교직과목 개설확대

(7%)>필수이수학점 확대(3.3%)>기타(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임교수의 확보와 전공과목 개설확대가 66.7%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와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가정과 교사의 재교육, 전문성 향상과 유능한 가정교육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었다. 대부분 졸업이수학점은 30학점이며, 교직과목은 6~8학점, 전공과목은 16~21학점, 논문은 3~6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육대학원 전임교수가 부족하고, 학부에 사범대

<표 11> 교육과정의 개선과제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의견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개선과제		N(%)(복수응답)
교과목개설의 확대	전공과목 개설확대	82(30.4%)
	교직과목 개설확대	19( 7.0%)
전임교수의 확보		98(36.3%)
교육실습체계의 개선		38(14.1%)
박사학위과정 개설		20( 7.4%)
필수 이수학점 확대		9( 3.3%)
기타		4( 1.5%)
계		270(100%)

와 가정교육과가 모두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3개 대학뿐으로 학부와 교육대학원의 연계성이 낮게 나타났다. 교직과목은 교사자격 검정령에 의한 과목이 공통으로 개설되었다. 전공과목의 교과과정은 가정교과교육, 의류학, 식품영양학 영역의 교과목 개설 비중이 높았고, 소비자·가정관리학, 아동·가족학, 주거학 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가정교육전공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교원 양성기관, 교사 재교육 순으로 인식하였다. 가정교육과 학부 출신과 직업이 교사인 학생은 교사 재교육에, 타과 출신과 교사가 아닌 학생은 교원양성기관에 더 높게 인식하였다.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전공과목 중 실험·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만족도 비교는 교직과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사는 교직과목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사가 아닌 학생은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교사인 경우 전공과목의 학교현장 활용도가 높아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전공과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개선안으로는 전임교수의 확보와 전공과목 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 결과처럼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교육목표는 주로 교사의 재교육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진학한 학생들이며 현직 교사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각기 인식하는 교육대학원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진학목적에 다른 두 대상을 같은 교육과정으로 교육한 결과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은 목적이 다른 두 집단의 상충된 교육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교사의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의 공급이 많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중등교원 신규 임용을 감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의 기능이 있으나 신

규 교원을 양성하기보다 현직교사의 재교육과 교과교육 전문가의 양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오는 많은 교육대학원생들을 생각할 때 교육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서울에 소재하는 11개 교육대학원과 교육대학원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추후 전국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교육개혁심의회(1987). **대학원교육의 내실화 방안**. 교육개혁심의회.

교육과학기술부(2007). 06, 07년 교원양성기관현황.  
<http://www.moe.go.kr/>

김미경(1997).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정교육 전공자의 인식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길(2001). **교육대학원 전문화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미(1995). **교과교육과 교육대학원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덕규 외(1993). **교육대학원의 기능 및 역할 제고 방안 연구**. 교육대학원 발전방안연구 위원회.

백인순(2000). **교육대학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1975). **서울대학교 30년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심귀섭(1993). **교육대학원의 교육환경에 관한 연구: 사립 교육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성(1995). **교육대학원 발전을 위한 진단과 개혁과제**. 연세교육과학.

<국문요약>

서울 소재 11개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가정교과에 대한 교육대학원생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정교육전공 교육목표는 공통적으로 가정과 교사의 재교육, 전문성 향상과 유능한 가정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졸업 이수학점은 대부분 30학점이고, 교직과목은 6~8학점, 전공과목은 16~21학점, 논문 학점은 3~6학점이었다. 전임교수의 확보가 부족하고, 3개 학교만이 사범대에 가정교육과가 개설되어 있었다. 교직과목은 교사자격 검정령에 의한 과목이 공통으로 개설되었다. 전공과목은 가정교과교육, 의류학, 식품영양학 영역의 교과목 개설 비중이 높고, 소비자·가정 관리학, 아동·가족학, 주거학 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의 기능을 교과교육 전문가 양성, 교원양성기관, 교사 재교육 순으로 인식하였다. 가정교육과 학부출신과 직업이 교사인 학생은 교사 재교육에, 타과 출신과 교사가 아닌 학생은 교원양성기관에 더 높게 인식하였다.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정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나 특히 전공과목 중 실험·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만족도 비교는 교직과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사가 아닌 교육대학원생이 교사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교사인 경우 전공과목의 학교현장 활용도가 높아 실제 수업을 할 때 전공과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개선안으로는 전임교수의 확보와 전공과목 개설확대를 요구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24일